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41)]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4 가지 중요성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외딴 곳[“한적한 곳”(개역개정)]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한적한 곳”(개역개정)]으로 떠났는데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육로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붙잡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마가복음 6:30-3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4 가지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 (1) 침의 중요성: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외딴 곳’(‘한적한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하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사역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외딴 곳”[“한적한 곳” 또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시라도 쉬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도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시고 쉬셨는데(출 31:17) 지금 우리는 6 일 동안 일하고 7 일째 되는 날인 안식일에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워주신 무거운 짐이 있지만(전도서 3: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마태복음 11:28,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신 초청에 겸손히 믿음으로 응하여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 (2) 한적한 곳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중추(backbone)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각자만의 조용한 곳, 즉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홀로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역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너무나 일하기에 분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좀 복잡한 생활 환경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 홀로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므로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 (3) 불쌍히 여김의 중요성: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이유를 마태복음 9 장 36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목자(목사)가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목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의 사랑 결핍증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지 않나요?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한 영혼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지 않나요?

### (4)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는 사역에 전심전력했습니다(마가복음 6:30; 사도행전 6:4).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되(골로새서 3:16, 현대인의 성경) 잘 가르쳐야 합니다(디모데후서 2:2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바른 교훈(sound doctrine)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디도서 2: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복음 28:19-20, 현대인의 성경).

##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시몬과 그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36-3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1) 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었을까 생각할 때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치유(healing)를 받고 싶어서라 생각합니다.

(2)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치유보다 전도(preaching)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수님은 전도를 하시되 있으셨던 곳에서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 전도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우선은 “가까운 이웃”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4) 예수님께서 또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  
생각보다 그 당시 1 세기 때 귀신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27, 34 절; 5:12-13; 마태복음 8:16, 31-32; 누가복음 4:36, 41;  
8:2, 31-33; 10:17, 20; 13:32; 사도행전 5:16; 8:7; 19:12-13;  
고린도전서 10:20; 요한계시록 18:2, 현대인의 성경).

## "감사 기도"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먹을 때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셨고 또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들에게 주시면서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언약)의 피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하신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6:20-3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실 줄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 현대인의 성경).

(2) 예수님께서서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언약)의 피이다”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두”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었을 텐데

과연 그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양심에 찔림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었을까요?

(3) 최후의 만찬 후 “그들은 찬송으로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5 장 8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현대인의 성경).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하시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집에 가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도 함께 앉아서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가복음 2:14-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예수님께서 레위[“마태”(마태복음 9:9)]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는 세리로서 그 당시 동쪽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경멸과 증오를 받는 죄인의 그룹에 속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호크마). 그 이유는 그 당시 “세리들은 특히 지배자로부터 세금 징수를 청부받아 이미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온갖 수탈(收奪)을 일삼던 자”였고 “레위와 같은 경우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들에 부과되었던 변칙적인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게 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호크마).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 장 27-29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인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 레위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가서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레위나 그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마가복음 2:15, 1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히 책(責)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세리)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하고 물었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2 장 11-14 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오자 흑시라도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관습을 어겼다고 비난할까 두려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당대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행 10:28, 행 11:3)”(인터넷). 결국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참고: 마태복음 15: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끝까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갈라디아서 2: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요즘 기독교인들이 마음 속으로라도 정죄하고 멀리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가복음 2:17,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죄인”(“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했던 그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병든 사람임을 아는 자는 당연히 자기가 의사가 필요한 줄 알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에베소서 1:7,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여러분(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2:8-9, 현대인의 성경).

##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필요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을 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20-2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마가복음 8:32, 현대인의 성경)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렸습니다(마태복음 16:22,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마가복음 8:33, 현대인의 성경)를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마태복음 16:2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24-28 절, 현대인의 성경)[“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누가복음 9:27, 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마가복음 8:3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을 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20-21; 마가복음 8:31-32, 현대인의 성경).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고백한 후(마태복음 16:16-17, 현대인의 성경)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내 때’(My hour) (요한복음 2:4, 7:6, 8, 30, 8:20, 12:4, 23, 27, 13:1, 17:1)]. 여기서 예수님의 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 일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 장 1-2 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날 때(태어날 때)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를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약 33 년 동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사셨습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고난의 필요성) 결국 죽음을 당하셨다가(죽음의 필요성) 3 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부활의 필요성)을 비로소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마가복음 8:32, 현대인의 성경)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렸을까요? (마태복음 16:22, 현대인의 성경) 왜 하필이면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말한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로(17 절) 그리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했다가 3 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일까요? (23 절, 현대인의 성경)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에게 “이용받는 도구”(호크마)가 된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가(26:33, 3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3 번이나 부인한 것일까요? (70, 72, 74 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41 절).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 장 8-9 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현대인의 성경)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3) 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가복음 8:34-35,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가(마태복음 16:33, 3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3 번이나 부인할 것(70, 72, 74 절)도 미리 아시고(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a)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b)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십자가를 달게 지고, (c)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사도행전 20:24, 현대인의 성경).

## 고난의 길을 걷어가는 예수님의 조용한 증인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가리켜 ‘고난의 길’

(라틴어: Via Dolorosa)이라고 부른다고 함

(약 1.2 km, 0.7mile)(인터넷)]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멀리서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상에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50, 55-56, 현대인의 성경).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쓸 것을 돕고

또 천국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8:2, 3).

실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적 노력과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요한일서 4:18).

예수님이 체포되자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달아났고(26:57),

특히 가장 열심히는 자로 자처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26:69-75).

그런 와중에 갈릴리 전도 사역 때부터 예수의 쓸 것을 돕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 동참했으며

또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처절한 예수님의 최후를 타는 가슴으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숨은 봉사자들이었으며

예수의 생과 사의 조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호크마, 인터넷).

##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건만 ...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마가복음 1:32-34, 현대인의 성경).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28 절, 현대인의 성경)을 듣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들도 복종케 하시는 능력있는 분 혹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23-27 절). 제가 보기엔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돼서 예수님에 대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병은 그들에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34 절, 현대인의 성경). 비록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였기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신성 모독 죄) 십자가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 되었지만(마 26:63-66, 현대인의 성경)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마가복음 3:11)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누가복음 4:41). 성경 야고보서 2 장 19 절 현대인의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두려워서 떠다고 말쓰하고 있습니다. 호크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으나 영적 감지력(感知力)이 뛰어난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눅 4:41). 사실 귀신들은 지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마 1:24), 자신의 운명(마 8:29) 그리고 구원의 계획(약 2:19) 등을 알았으며, 그들 나름대로 잘 발달된 지적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딤후 4:1-3)”(호크마). 마지막 세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마가복음 1:34,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크마의 설명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귀신의 말을 허용 혹은 묵과하셨다면 상황은 어떠했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24 절에서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서슴없이 외쳐대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자신의 신적인 존재에 대해 인지(認知)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나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실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악한 존재에 의해 그 신분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의 메시아인가를, 즉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오직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다(16:15, 행 1:8).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아직 당신의 존재를 공개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침묵을 요구하셨던 것이다”(호크마).

##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은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늘 나라(천국)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간교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이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2:21, 34,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3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37-40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율법학자는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선지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옛 언약)에선  
모세의 10 계명을 제일 중요시했다면  
신약(새 언약)에선 예수님께서서는  
그 10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모세의 10 계명 중 1-4 계명)과  
‘이웃 사랑’(모세의 10 계명 중 5-10 계명)의 계명(이중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은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늘 나라(천국)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혀 계셨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45-4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나(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속량)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이나 못박혀 계셨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히브리서 1: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4:2, 현대인의 성경)

낮고 낮은 이 천한 세상에 오시되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고린도후서 5:21, 현대인의 성경)]

육신의 몸으로 구유에 태어나신 후(누가복음 2:15)

33년 후에 십자가에 3시간 동안이나 못 박혀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은 신 후

3일 동안 “깊은”(요나 2:3, 현대인의 성경) 땅 속 갇혀 계시므로

(참고: 요나 2:6, 현대인의 성경) 말미암아

제(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새 찬송가 304장)을

“어찌 찬양 안 할까”(새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입니다.

## 그들로 하여금 말문을 막히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간교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여 어떻게 해서든 넘어트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의 간교한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문을 막히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참고: 마태복음 22:17-22, 현대인의 성경).

##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말고 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고 계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3 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십 테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마태복음 27:38-4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마태복음 4:1-11)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에도 마귀의 종들인 (1) “지나가던 사람들”과 (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3) 예수님과 함께 못박힌 두 “강도들”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시험이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보러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말고 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만일 사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생명을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참고: 마태복음 16:22-25,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36-39, 42-44, 현대인의 성경).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뿐만 아니라

등에 기름을 채워 둔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1-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42),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25:1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33),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36).

##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6:46-4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5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강도도 아니신 예수님께서서 강도 취급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어쩌면 그 무리들의 배후 조정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한 후  
(누가복음 23:1-2, 현대인의 성경)

군중들을 조종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외치게 하므로  
(21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진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38).

그 와중에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두 강도들 중 한명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43, 현대인의 성경).

##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

“간청”이란 단어의 단순한 의미는 “간절히 청하다”입니다(인터넷). 마가복음 5 장을 읽다보니 “간청”이란 단어가 5 번 나옵니다: (1)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10 절, 현대인의 성경), (2)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 떼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12 절), (3)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17 절, 현대인의 성경), (4)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같이 가게 해 달라고 간청(18 절, 현대인의 성경), (5) 아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어 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 주십시오”하고 간청(22-23 절, 현대인의 성경). 이 5 번의 “간청”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더러운 귀신들의 2 번의 간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13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영인 귀신들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돼지 떼였습니다. 왜 그 수많은 귀신들[이름이 “군대”임. 그 이유는 수가 많기 때문임(9 절, 현대인의 성경)]이 그 거라사 지방(1 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2 절)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심으로(8 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들의 간청대로 거의 2,000 마리나 되는 돼지 떼 속에 들어가 그 수많은 돼지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13 절,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공동 묘지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사실이 왜 흥미롭냐면 더러운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으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 묘지에서 살다가 결국 예수님께 간청하여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 그 돼지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더러운 귀신들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거의 2,000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14-15, 현대인의 성경).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16-17 절,

현대인의 성경). 왜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15 절). 이러한 두려움과 무지와 경제적 이기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자신들의 미신적 상상력과 물질적 욕심 때문에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4:19)(호크마). 우리도 충분히 주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요한 1 서 4:18)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충분히 부인(deny)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deny)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꼭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마가복음 4:19, 현대인의 성경) 때문에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부인(deny)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청대로 그 지방을 떠나시고자 배에 오르셨는데 그 때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같이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5:18-19, 현대인의 성경). 귀신 들렸다가 치유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던 것입니다[(18 절, 공동번역)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같이 가면서 자기 몸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호크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는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알리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습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귀신들의 간청은 허락하시고 귀신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의 간청은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로마서 9 장 20-21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에 곧장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귀신들렸다가 치유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우리 가족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친구들과 주위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다 알려야 합니다.

- (4) 저는 아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어 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 주십시오”하고 간청(마가복음 5:22-23, 현대인의 성경)한 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 주시길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사도 베드로의 간구를 생각나게 하시사 실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살려 주십시오”하고 간구케 하셨습니다(참고: 마태복음 14:30,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결과는 첫째 아기 주영이는 살지 못하고 제 품 안에서 죽었고(잠들었고) 또 다른 딸은 주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 (5)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와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시편 27:4, 현대인의 성경).

##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하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마가복음 1:40-4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예수님께서서는 문둥병이 깨끗이 낫기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던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저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저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참고: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양심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문둥병이라 생각합니다”(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2912700575)].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 나라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 (2)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능력의 오른손을 내미시사 우리의 “손잡아 주시며 나(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참고: 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 (3)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형제(저 자매)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는 한 마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게 경험하길 기원합니다.
- (4)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하고 말씀해 주시므로 그들의 병이 즉시 나음을 받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다니엘 3 장 18 절)”(https://blog.naver.com/kdicaprio74/150056509388)]으로 금년 2024 년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복음성가: “좋으신 하나님”)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새 찬송가 79 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새 찬송가 413 장, “내 평생에 가는 길”)를 찬양드릴 것입니다[참고: 고 홍수정 자매의 장례 예배 찬양 동영상(<https://youtu.be/EoakVUkfUZw?si=umNqq8bO-8H1UVk6>)].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하였습니다(마태복음 27:5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계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41, 43 절, 현대인의 성경)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에게(요한복음 20:25, 현대인의 성경)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29 절, 현대인의 성경).

## “너는 내 아들이라”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말씀(마가복음 1:11,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3 명의 제자들(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41, 45, 현대인의 성경).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데(참고: 마태복음 26:41,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전서 4:7) 혹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마태복음 26:45, 현대인의 성경) 아니면 혹시 지금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들어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간구하지) 않고  
요나 선지자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요나 1:5, 현대인의 성경)

## '뇌물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 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2-5,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27 장 25 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 16 장 19 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 뇌물은 ...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에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26:24, 현대인의 성경).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11-12, 현대인의 성경).

## 대답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하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물어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11-14, 현대인의 성경).  
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이  
일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증언하는 말을 다 들으셨으면서도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의 거짓 증언의 말들에  
전혀 대답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하고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로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25,34-36, 현대인의 성경).

새 찬송가 399 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 절과 후렴 가사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 듣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를 부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6-2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권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베드로후서 2:10, 현대인의 성경)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기에

(누가복음 4:31, 현대인의 성경) 듣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오"

(디도서 2:15, 현대인의 성경).

##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제 어린 딸이 죽어 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며 밀어닥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는다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 가다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곧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하고 물으셨고 또한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시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마가복음 5:22-3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간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예를 들어,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처럼) 원해서 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그 여자는 재산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자기 병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그녀가 그리도 간절히 바라는 대로 자기 병이 나아지기는 커녕 고생은 고생대로 무척 하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자기 병만 더 악화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그녀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며 자포자기 하게 만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자기 병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리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자기 병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어가므로 무척이나 실망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42장 5, 11절과 43장 5절 말씀이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3) 그 여자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그녀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군중 틈에 끼어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녀의 피가 즉시 멎었고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합니다. 새 찬송가 87 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3 절 가사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최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4) 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19 장 23-2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아서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인터넷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옷은 그대로 돈이었습니다. 직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한 올 한 올 짜야 합니다. 그래서 옷은 너무나 귀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아침 9 시 정도까지 계속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옷은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 병정은 네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수입이 생겼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후에 나누어 가지면 술값 정도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겹옷을 벗겨서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한 깃씩 가졌다고 한 것을 보면 네 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옷 조각도 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피가 묻었어도 빨면 됩니다. 지금 성경 학자들은 네 조각으로 예수님의 나눈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복음이 퍼져 나갈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겹옷을 벗기고

나서 속옷을 벗기려고 할 때 로마 병정들은 놀랐습니다. 속옷은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원문에는 <키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톤이라는 말은 놀라운 단어입니다. 직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지만 모두 한 조각입니다. 한 통으로 짠 옷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23) 이런 옷은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제사장들만이 특별히 입는 옷입니다. …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는 요세프스입니다. 요세프스는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다고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성경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너무나 비싼 옷이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 채로 한 사람이 가져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흔히 겂옷이 비쌌습니다. 속옷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겂옷을 잘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키톤 이 옷을 입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키톤 제사장 옷을 입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폰티텍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이 옷을 나눌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들이 있는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고 죽으셨습니다”(인터벳).

- (5)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저는 질병으로 수년동안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시사 그들이 질병해서 해방되어 건강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갑니다”(새 찬송가 272 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절과 4 절).

##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마태복음 26:3-4,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지금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교묘하게 쫓아낼 방법을 의논하고자 교인들의 장로의 집에 모임을 갖고 있는 반-담임목사(anti-senior pastor) 장로들과 집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목표와 계획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 5 절, 현대인의 성경).

##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12, 1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박힐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준비한 것이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잘 준비해야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25:1-13).

##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해야(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런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바로잡히기를 거부하는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은 그 주님의 종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참고: 마태복음 17:11-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제 자신에게 반영해 보았을 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해야(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사 기름 부어 주님의 종(목사)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바로잡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였습니다. 몇 가지로 드는 생각대로 글을 적어가면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 (1)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저를 먼저 회복하시길(바로잡으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회복하심(바로잡으심)에 있어서 제일 급선무는 회개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repentance)가 없는 회복(restoration)(바로잡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개할 것 중에 시급한 것은 저의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와 저의 위선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새 찬송가 190 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 절과 후렴).
- (2)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회복하시길(바로잡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저의 가정이라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되어(바로잡혀) 변화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9; 6:4).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되 올바른 길을 입술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마태복음 21:32, 현대인의 성경) 저의 올바른 삶으로도[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므로(빌립보서 1:27)] 본을 보여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저의 모든 가정 식구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마가복음 8:35, 현대인의 성경).

(3) 이러한 제 자신과 제 가정의 회복(바로잡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에베소서 1:22; 5:23; 골로새서 1:18)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마태복음 16:18) 저와 제 가정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각자 성기는 교회의 회복(바로잡힘)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회개의 역사(일)를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방망이와 불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인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부서트려주시고 녹여주실 뿐만 아니라(예레미야 23:29)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에베소서 6:17) 우리 양심(마음)을 찌르시사(사무엘상 24:5; 사무엘하 24:10) 우리 죄를 들춰내주시고(에베소서 5:11) 또한 우리 죄를 고백케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요한일서 1:9).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하여 주시사(로마서 12:2, 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마태복음 5:13-16).

##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우리들에게 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마태복음 26:31, 56, 현대인의 성경; 참고: 스가랴 13:7,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한 사도 베드로(마태복음 26:33, 현대인의 성경)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고 했습니다(58 절, 현대인의 성경). 아마도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누가복음 22:57, 58, 60). 그가 세번 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말을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고 주님께서서는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60-62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마태복음 10:33, 현대인의 성경).

##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여자가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 안에 있는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6-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짐 엘리엇이란 젊은 선교사가 생각합니다. 그가 29 살이란 젊은 나이에 예과도르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하다가 동역자 4 명과 함께 순교했을 때 그 당시 미국에 일간지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런 머리말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 (인터넷).

과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이 낭비였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의 값진 향유 한 병이 낭비였을까요?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그 제자들 중 한 명이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화 30 개를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14-15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절, 현대인의 성경).

새 찬송가 211 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 절과 4 절 가사입니다:

(1 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 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남자만 약 5,000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마가복음 6:30-44; 마태복음 14:15-21; 누가복음 9:11-17; 요한복음 6:1-15)을 목격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저문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습니다(마가복음 6:46; 마태복음 14:23; 요한복음 6:15, 현대인의 성경).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요한복음 6:16-18,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있었습니다(마가복음 6:48; 마태복음 14:24,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배를 저어 4-5킬로미터쯤 갔을 때(요한복음 6:19, 현대인의 성경)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혼자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새벽 4 시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시려하셨습니다(마가복음 6:48, 현대인의 성경).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49 절; 마태복음 14:26,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4:27).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너라”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고(28-32 절, 현대인의 성경)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들었습니다(요한복음 6:21,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곧 바람이 그쳤습니다(마가복음 6:51, 현대인의 성경).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마가복음 6:46-52, 현대인의 성경).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하였습니다(마태복음 14:3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 장 45-5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 장 22-33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요한복음 6 장 15-2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1)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남자만 약 5,000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요한복음 6:15, 현대인의 성경)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political freedom)를 누리며,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으며(economic prosperity) 또한 사회적으로 공의(social justice)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참고: 김세윤).
- (2)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저문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는 사실(마가복음 6:46; 마태복음 14:23; 요한복음 6:15, 현대인의 성경)이 주는 교훈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우리를 높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홀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가복음 14:36, 현대인의 성경)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로 높임을 받길 원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 (3)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한(요한복음 6:16-18, 현대인의 성경) 결과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있었다(마가복음 6:48; 마태복음 14:2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요나 1:1-4). 결국 준비에 뿔힌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있음을 불신자 선장과 선원들에게 밝혔는데 그 때 폭풍이 점점 더 무섭게 휘몰아치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소?”하고 물었고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였으나 점점 더 사나운 파도가 밀어닥치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10-13 절, 현대인의 성경).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이 세상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양한 죄악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죄악된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사나운 이 세상의 파도가 밀어닥치므로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지금 육지에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사도행전 27:20). 지금 우리는 살아 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20 절, 새번역).

- (4)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참고: 마가복음 6:48,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참고: 마태복음 14:25, 현대인의 성경).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 “유령이다!하고 소리를 질렀던 제자들(49 절; 마태복음 14:26, 현대인의 성경)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마태복음 14:27)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하고 말씀하십니다(이사야 41:10).
- (5)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41 장 10 절의 약속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하고 소리신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사 건져주셨습니다(구원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29-31, 현대인의 성경).
- (6)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31 절, 현대인의 성경)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하셨습니다(요한복음 20:27, 현대인의 성경).
- (7) 예수님께서서 믿음이 적어 의심한 베드로와 함께 배에 함께 오르시자 (마태복음 14:31-32 절, 현대인의 성경) 곧 바람이 그쳤다(마가복음 6:5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성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요나 1:15, 현대인의 성경). 우리 인생에 부는 큰 바람으로 인해 큰 풍량이 일어나 우리가 향해하는 바다가 성난 바다로 바뀌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바다에 노저어 향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하고 찬양합니다(새 찬송가 432 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2 절과 후렴).
- (8)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마가복음 6:46-52, 현대인의 성경).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1 장 34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 (9)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을 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하였습니다(마태복음 14:33, 현대인의 성경). 이 신앙 고백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니엘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다니엘)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요한복음 1:49, 현대인의 성경), (도마)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20:28, 현대인의 성경).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2:15, 현대인의 성경).

##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신 “달란트”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곧 가서 그것으로” 수고하여 남기는 “장사”를 해야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 두”면 안 됩니다  
(참고: 마태복음 25:15-19, 24, 현대인의 성경).

## 배반과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에서는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21, 31-3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만찬 때에는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임을 아셨고, 기도하시려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요한일서 4:8, 16)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마태복음 27:46). 이렇게 배반과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새 찬송가 149 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4 절).

##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어쩔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우리는 곧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고: 마가복음 4:14-20, 현대인의 성경).

##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 하라”고 말씀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울며 몹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소녀의 부모와 데리고 간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하셨는데 이 말씀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12 살 된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걸어다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킨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5:36-4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저는 예수님께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서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고(마가복음 9:2, 현대인의 성경) 또한 겐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하신 말씀(14:32-34, 현대인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 (2) 예수님께서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울며 몹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요한복음 11:11,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를 것입니다”하였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12-1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14-15 절, 현대인의 성경)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이미 죽은지 4 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17-18, 43-44 절, 현대인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3 절부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3-14 절).

- (3)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뜻: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하시자 12 살 된 그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다녔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60 장 1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새 찬송가 502 장 “빛의 사자들이여” 1 절과 후렴 가사도 생각났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취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취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 “선생님, 저입니까?”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물었는데 가롯 유다만 “선생님, 저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마태복음 26:20-25, 현대인의 성경).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리 물었을까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선생님, 저입니까?”하고 묻기보다 “선생님, 저입니다”하고 고백 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26 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셔서 (이미 당하신 듯)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새 찬송가 338 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4 절 가사 하반부를 이렇게 수정하여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싶습니다: ‘… 숨질 때 되도록 늘 감사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하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4:23-26, 현대인의 성경).

## 설교자로서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되 ...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을 때 놀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하시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자 모두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명령이 복종하는군!” 하며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마가복음 1:22-2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설교자로서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되 그 말씀의 능력이 더러운 귀신들도 복종케 하는 것처럼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도 복종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마가복음 1:12)

성령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히브리서 4:16)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사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참고: 호세아 2:14).

##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참고: 마가복음 1:1, 5, 현대인의 성경).

## 성전 건물을 자랑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건물을 자랑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참고: 마태복음 24:1-2, 현대인의 성경).

##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29-31, 현대인의 성경).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21-22, 현대인의 성경).

##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외쳐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빵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하였을 때  
“도대체 모든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하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하며 딱 잡아 떼었습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씨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  
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마태복음 26:66-7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와 죽을 지경이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38-40 절, 현대인의 성경)  
이번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빵을 때리면서 조롱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41 절, 현대인의 성경).

##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하고 간구하셨는데  
세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을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38-43,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 식구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싶지만  
몸이 몹시 피곤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다 가도 잠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식구로 인해서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약속의 중요성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헤롯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하고 말했고 헤롯도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하였습니다(마가복음 6:14-16,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물론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15 절)도 있었지만 근래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헤롯 왕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을 때 헤롯 왕은 살아생전의 세례 요한과의 기억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란 헤롯이 전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하고 말한 책망입니다(17-1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하였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듣고 하였다는 것입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자기의 잘못을 책망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들 수 있었을까요? 그런 와중에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좋은 기회”란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고관들과 고위 군지휘관들과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서 헤롯과 참석한 손님들을 즐겁게 하자 왕은 소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하고 물었던 것입니다(21-24 절, 현대인의 성경). 수시로 우리를 노리는 헤로디아와 같은 사탄의 종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트리고 또한 해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오 왕 시대 때 총리 세 명이 있었는데 다른 두 총리들이 총명하여 모든 면에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던 다니엘 총리를 국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었습니다(다니엘 6:1-4,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4 장 7 절 하반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현대인의 성경).

자기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할까요?”하고 묻는 딸에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하고 대답했고 그 딸은 “급히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곧 제게 주십시오’하였습니다(마가복음 6:24-2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이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에스더 5:3), “그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6 절),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7:2). 그런데 에스더란 여인과 헤로디아란 여인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간략하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고, 헤로디아는 악한 사탄의 간악한 딸입니다! 이 간악한 사탄의 딸인 헤로디아에게 지배를 받고 조정을 받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절대복종하는 헤로디아의 딸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엄마와 딸 관계 속에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곧 제게 주십시오”란 요구를 들은 헤롯 왕은 몹시 괴로워했으면서도 자기가 한 약속과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결국 즉시 사형 집행인을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자 그는 감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었으며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25-2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습니다(29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약속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헤로디아의 딸에게 한 약속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켰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2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렇지만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들곤 하였”었거든요(1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그가 즐겨 듣고 하였던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였던 것하고,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곧 제게 주십시오”한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였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딸인 헤로디아의 말을 그녀의 딸을 통해서 들은 말로 인해 헤롯 왕은 더 몹시 괴로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헤롯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헤롯 왕처럼 몹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 양심에 찔린바 되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 지 모를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난 3 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3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음, (2)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음, (3) 무덤이 열려 잠자던(죽은)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왔음(마태복음 27:50-53, 현대인의 성경).

- (1)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히브리서 10:19, 20)으로서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호크마).
- (2) 성전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시편 18:7; 이사야 5:25; 요엘 2:10)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는 새언약과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임재를, 끝까지 불신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영원한 심판의 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합니다(호크마).
- (3) 지진의 결과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이 열리게 되었고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메시아(그리스도)가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마태복음 9:25; 22:23)이 현실화한 것인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재림) 때에 있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이 다시 땅 위에 살게 하려는 것이기 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영화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죽었던 자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 부활 후 무덤에서 나온 것은 (1)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가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을 상징하며(고린도전서 15:55-57), (2)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생생히 증거하고(23 절), (3)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에베소서 4:8,9) (호크마, 인터넷).

## 예수님께서도 위선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한 “조상들의 전통”이란 “먼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마가복음 7:1-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적어도 2 가지가 있었습니다: (a)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 그의 문둥병을 고치셨을 때 그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퍼뜨렸음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마가복음 1:40-45, 현대인의 성경). (b)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한복음 6:26).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어기는지(누가복음 14:1; 참고: 마가복음 2:16) 전통을 어기는지 엿보기 위해서든지(마가복음 7:5; 누가복음 5:33),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기 위해서든지(누가복음 6:7), 예수님을 시험하든지(마태복음 16:1, 19:3; 마가복음 8:11, 10:2),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든지(마가복음 12:13),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마태복음 22:15,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참고: 요한복음 6:6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참고: 마태복음 15:10; 마가복음 7:14, 현대인의 성경 ).

(2)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들이 지켜 온 전통에 따라 먼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었는데(마가복음 7:3-4, 현대인의 성경)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 …,”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6-9 절, 현대인의 성경)였습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교회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위선자들이요,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주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위선자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차 있으며(마태복음 23:25, 현대인의 성경) 또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로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차 있습니다(27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에 이러한 위선자들이 드리는 헛된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수많은 제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에 이제 싫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구나.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 밖에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1:11-15,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위선자들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13, 15, 23, 25, 27, 29 절).

(3)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위선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가복음 7:8-9, 현대인의 성경).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의 전통(?)대로 아내와 자녀(가족)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13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며(9 절, 현대인의 성경)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디모데전서 5:8,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말씀(마가복음 1:10,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누가복음 1:15,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5,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아무리 지혜로 가르치시므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고,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요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2-5,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16,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6, 현대인의 성경).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며 아예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28:22,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그들은 자기 가족 식구 중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하되  
사랑하는 식구에게도 배척을 당할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새 찬송가 336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 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길 원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 죄과 신성 모독 죄를 범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하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6:63-66,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단 한 분 밖에 없는

여호와”이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4,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하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30-31, 현대인의 성경).

결국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길 원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26:59,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26:66)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 죄(61 절)과

신성 모독 죄(63-65 절)를 범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순서를 묵상할 때 받는 교훈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마가복음 1:14-15),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고(16-20 절),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21-22 절),  
그 다음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도 나오게 하시사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23-27 절),  
그러신 후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사 그녀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29-31 절).  
이 순서(sequence)를 묵상할 때 제가 받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참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그 다음에는 제자를 삼는 것이요  
[참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19)],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11-13)].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묵상할 때  
저의 기원은 주님께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시사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투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 문 앞까지 꼭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을 정도로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그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2:2-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가지 생각이 듭니다:

(1)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온 그 네 사람을 생각할 때 제 잠든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살아생전에 암 투병하면서 저에게 말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이란 제 기억으로는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이란 의미는 ‘태어난 코끼리를 둘러싸고 출산 과정에서 포식자와 싸우는 코끼리들처럼, 위기 상황에서 즉시 기도로 나를 둘러싸는 기도하는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모두를 습격하는 영적 전쟁에서 보호를 제공합니다’(“Like the elephants that surround a birthing elephant and fight off predators during the birth process, praying believers who immediately surround you in prayer during a crisis provide protection in the spiritual warfare that ambushes us all at times”)(인터넷). 우리 수정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들(친구들)이란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네 사람들처럼 암투병하고 있는 식구나 친구나 주님 안에서 형제나 자매나 또한 전도 대상자에게 “그 코끼리들”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친구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길 기원합니다(참고: 로마서 5:8, 현대인의 성경). (2) 그 네 사람은 그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많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그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렸다는 사실을

(2) 호크마 주석의 해석을 읽으면서 좀 더 생생하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4 명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최선을 다했다. 결국 그들은 우회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즉 바깥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환자를 메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환자를 달아내렸다. 한편 팔레스틴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지붕이 평평하며, 방은 하나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형태이다. 그리고 바깥은 지붕으로 계단이 놓여 있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 짚으로 엮어 그 위에 놓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워 비를 막도록 되어 있다. 가끔 들보 위에 기와를 놓고 다시 그 위에 짚과 흙으로 덮기도 했다(2:1 - 28 주제 강해 '예수 당시의 서민 가옥 구조' 참조). 따라서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려 온 사람들은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짚, 석회, 판자, 기와 등을 떼어내고(이때 분명히 먼지가 집 안으로 쏟아졌을 것이다) 막 드러난 들보(the now exposed beams) 안으로 그 환자를 달아 내렸을 것이다”(호크마). 그리할 때 저는 그 네 사람의 헌신적인 최선의 노력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그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은 사랑하는 수정이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간구한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 네 사람들이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을 때에는 그 지붕을 고치는 값도 당연히 그 집 주인에게 지불할 마음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정이를 위해 기도해준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은 수정이와 그녀의 남편과 다섯 명의 자녀들에게 값을 지불하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 (3) 예수님은 그 네 명의 헌신적인 최선의 노력을 보셨고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가복음 2:5, 현대인의 성경).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 장 14-26 절에서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14-17 절, 현대인의 성경). 제 생각엔 예수님께서서는 그 한 중풍병자를 위해 지붕까지 뜯어서 그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그 네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행함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마가복음 2:5,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 네 사람이 제일 첫째로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일어나 네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9 절, 현대인의 성경)을 제일 먼저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암 투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암을 치유해 주시길 제일 간절히 기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질병이 치유 받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죄사함)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후 그에게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하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11-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네 사람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지붕으로 들것에 누워서(실려서) 집에 들어왔었던 그 중풍병자는 결국 자기의 두 발로 걸어가 그 집을 나간 것입니다. 하하. 이렇게 죄사함과 치유를 받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The Elephants”(그 코끼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투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 예수님의 모든 사역(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중추(backbone)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마가복음 1:35, 현대인의 성경)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 (1) 어쩌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국 교회에 새벽기도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 “이른 새벽”이란 ‘조용한 시간(quiet time)’이라 생각합니다. 새 찬송가 539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 절 과 후렴 가사가 생각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 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 (3)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귀하다는 생각입니다.

- (4) “외딴 곳”(개역개정은 “한적한 곳”)이란 ‘조용한 곳(quiet place)’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 장 3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우리 각자만의 조용한 곳, 즉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 예수님께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헨리 나우웬이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외로움과 고독의 다른 점은 외로움은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도 아닌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의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우리는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대신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고독을 즐기지 못하면서 외로움은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외로움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마음(quiet heart)으로 홀로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므로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 (6)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중추(backbone)였다고 생각합니다.

##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 비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벌판인 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이나 들여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하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아본 결과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떼지어 풀밭에 앉히라고 지시하였고 제자들은 그 모든 사람을 100 명씩, 50 명씩 모여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을 열 두 광주리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 명이었습니다(마가복음 6:35-4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벌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35 절,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6 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1 절)에 있는 “산”(3 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2) 그 때가 “날도 이미 저물었”을 때(마가복음 6:35,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 장을 보면 “저녁때”(15 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 장을 보면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4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언급한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뿐만 아니라 특히 떡 다섯 덩어리를 남자만 약 5,000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신 목적은 “생명의 떡”이시요(48 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1:29) “유월절 양”(출애굽기 12:21)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요한복음 3:16).
- (3)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곳은 벌판인 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마가복음 6:35-36,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14 장 15 절과 누가복음 9 장 12 절을 보면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누가복음엔 “숙소도 찾고”라고 말씀하고 있기 하지만 서두요). 그런데 요한복음

6 장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공관복음”이라고 부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란 (a)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5 절)하고 시험하신 말씀(6 절)과 빌립의 답변인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7 절)란 말씀, (b)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9 절)란 말씀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안드레가 한 말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 장 38 절인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38 절)하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찾은 것입니다(요한복음 6:9). 그래서 마태복음 14 장 17 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하고 말한 것이고, 누가복음 9 장 13 절에서는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이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한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한복음 6:5)였고, 그 시험 문제의 답안지를 써낸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7 절)였고[마가복음 6 장 38 절에는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하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음],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9 절)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답안지는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란 말씀입니까?”(누가복음 9:13, 현대인의 성경)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험 문제의 제자들의 답안지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는 남자만 약 5,000 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 장 27 절 새번역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누가복음 1 장 37 절 새번역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 문제 말씀에서 놓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불가능한 일이란 없고 모든 일이 가능한 하나님으신 예수님도 포함돼 있는데 제자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다(히브리서 12:2). 시험 문제를 내신 예수님이 답안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 (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명하시자 그들은 100 명씩 또는 50 명씩 앉았다고 마가복음 6 장 39-40 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 장 14 절은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마태복음 14 장 19 절은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고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 장 10 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 여기서 다른 점은 마가복음만 “푸른 잔디 위에 앉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숫자입니다[마가복음은 100 명씩 또는 50 명씩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떼를 지어 한 50 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음]. 숫자의 차이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푸른 잔디”를 언급한 것을 묵상할 때 저는 시편 23 편 1-2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쉬게 하시고(현대인의 성경)]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5)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현대인의 성경)]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셨다고 마가복음 6 장 41 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 장 19 절과 누가복음 9 장 16 절과 요한복음 6 장 11 절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 6 장 11 절 후반절에서 “...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남자만 약 5,0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줬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적인 사람인 빌립의 경우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 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요한복음 6:7, 현대인의 성경)하고 대답했던 사람이 어떻게 남자만 약 5,000 명이나 되는[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00 명이나 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4:21)]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데로 빵(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빌립의 행동입니다. 빌립보서 4 장 13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마가복음 6:41,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이끌림을 받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데살로니가전서 5:18)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미 죽은지 4 일이나 되어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게 하신 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하고 말씀하신 후 “나사로야, 나오너라”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베에 묶인 채 나왔습니다(요한복음 11:41-44,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기도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6)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마가복음 6:42-43). 이 결과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14 장 20 절과 누가복음 9 장 17 절과 요한복음 6 장 12 절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6 장 12 절에서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거둔 것이고 그 결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마가복음 6:43)가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둔 것입니다[요한복음은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요한복음 6:13)하고 말씀하고 있음]. 왜 예수님께서서는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신 것일까요? Lightfoot 학자에 의하면 유대풍속에, 식사에 봉사하고 남은 음식은 그 봉사자들의 분깃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크마는 “예수님은 선물을 관대하게 주시지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신다. 물질이 헛되이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교인들은 ...

진실하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교인들은  
 입술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간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2:16-18, 현대인의 성경).

##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와 죽을 지경임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신 예수님께서서는

8 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하고 말씀하신 후

3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셔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6-38, 현대인의 성경).

왜 예수님은 8 명의 제자들에게

“...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하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와

죽을 지경임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그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과 같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마가복음 7:1, 7, 13, 현대인의 성경)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을 다시 불러모으시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14-15 절, 현대인의 성경).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17-23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에게는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14 절, 현대인의 성경)[“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마태복음 15:10,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신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16 절,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 7:18,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점을 묵상할 때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마태복음 15 장 15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마가복음 7:17, 현대인의 성경)[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마태복음 15:15, 현대인의 성경)]. 시편 119 편 169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길 기원하는 것은 깨달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잠언 2: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애쓰며(3 절, 현대인의 성경)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하면 그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다니엘 10:12, 현대인의 성경). 그 기도의 응답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요한일서 5:20,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성경은 “거룩하신 분(하나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언 9:10,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에 성경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언 3:13,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2: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시편 119:144, 현대인의 성경).

(2)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났다는 것[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것(개역개정)]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마태복음 15:12, 현대인의 성경)(이 기록은 마가복음 7 장에는 없음). 그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마태복음 15:13-14, 현대인의 성경).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왜 그 예수님의 비유가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호크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실족하여 진리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호크마). 호크마의 말입니다: “사실 진리를 말한 사람에 대한 분노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a)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오던 것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자신에 대한 배반감으로 인해서 생성된 분노, (b) 자신의 판단이 거짓이었으며 불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거부하고 진리를 말한 사람을 오히려 이단시하는 태도에서 오는 분노로서, 이러한 왜곡된 모습은 진리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오히려 두려워하고 외면하려는 마음에서 나타난다”(호크마).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요한복음 14:6)을 대적하였던 위선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내(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로서 반드시 대심판 날에 “모두 뽑힐 것”이요(마태복음 15:13, 현대인의 성경) 최종적인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마태복음 13:19, 40(호크마)]. 또한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로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마태복음 15:14,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분간치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여 거짓의 길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위선자들이요 영적 소경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외식을 본받아 따르는 영적 “소경”인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호크마).

(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마가복음 7:18-19,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4 장 3-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믿음으로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는 자들로서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1-2 절, 현대인의 성경)]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30, 현대인의 성경)

- (4)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7:20,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21-22 절, 현대인의 성경)[마태복음 15 장 19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모략, 교만, 어리석음”은 없고 대신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 있음].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23 절, 현대인의 성경)[마태복음 15 장 20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추가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하고 말씀하고 있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 설명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고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극도의 매너리즘(mannerism)과 위선에 빠져 있어서 늘 외형적인 더러움만을 씻어 내려고 하는 일에 급급해하지 말고(호크마) 내면적인 죄악을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므로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치유하셨을(마가복음 7:32-37, 현대인의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앉은뱅이, 절뚝발이, 소경, 병어리, 그 밖의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히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마태복음 15:30, 현대인의 성경). “병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성해지고 앉은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31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무렵 또 다른 군중이 많이 모여 들었으나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8:1, 현대인의 성경):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3 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이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 만일 굶겨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2-3 절, 현대인의 성경)(마태복음 15 장 32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추가로 예수님께서서는 “저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음).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하고 대답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4-5 절). 그러자 제자들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마태복음 15:3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개역개정)]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습니다(36-38 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수님께 많이 모여든 또 다른 군중(“큰 무리”)은 3 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불쌍히 여기셨습니다(개역개정)](마가복음 8:1-2, 현대인의 성경) [참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남자만 5,000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없음]. 여기서 그 군중이 3 일이나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3 일동안 다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바울)도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사도행전 9:9, 현대인의 성경)[“3 일”하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과(마태복음 12:40,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 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음(마가복음 9:31)]. 예수님께서서는 3 일 동안 먹지 못한 큰 무리 중에 만일 “먼 데서 온 사람들”을 굶겨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8:3,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예수님은 3 일 동안이나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시편 72:13).

(2)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4,000 명(마태복음 15:38, 현대인의 성경)이나 되는 사람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8:4)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말했었는데(출애굽기 16:3, 현대인의 성경)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겠다”하고 말씀하신 후(4 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신명기 8:3) “만나”(출애굽기 16:31)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 년 동안 먹에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신명기 8:3). 육신적으로 굶주림이나 궁핍함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하고 물으셨을 때(마가복음 8:5) 그들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마태복음 15:34).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요한복음 6:9,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했는데 칠병이어의 기적 말씀에는 제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침묵이 좀 흥미롭습니다. 충분히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예수님께 이런 저런 말(질문)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들은 아무 질문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약 5,000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기에 칠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그저 있는 것 떡 7 개와 물고기 2 마리만 예수님께 말씀드린 후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그 큰 무리를 어떻게 먹히실 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비록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께 이런 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에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가능케 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 개를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였고 생선 두어 마리도 그리하셨습니다(마가복음 8:6-7).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고 부족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요한복음 11:41). 그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44 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5) 남자만 약 4,000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다들 베블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나 거뒀습니다(마가복음 8:8, 현대인의 성경)[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열 두 광주리나 남았음(요한복음 6:13, 현대인의 성경)]. 3 일 동안이나 먹지 못해 굶주렸던 큰 무리가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베풀리 먹었다면 얼마나들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에베소서 3:20,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마태복음 22:23-33,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 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경계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시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경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마태복음 27:62-6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 거짓말쟁이”하고 말한 것(마태복음 27:63,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버지로서 그에게는 진리가 없음으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는 요한복음 8장 4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비취볼 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거짓말쟁이들로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그러므로 진리의 편에 서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참고: 욥기 34:6,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서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참고: 요한일서 2:4,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 요한일서 5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참고: 잠언 19:9,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유향이 타는 불뿔에 던져질 것입니다(참고: 요한계시록 21:8, 현대인의 성경).

(2)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하고 말한 것(마태복음 27:63,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아마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누가복음 24:46,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 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하고 말씀하셨을 때(요한복음 2:1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21 절, 현대인의 성경)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하고 말씀하신 것(누가복음 9:22, 현대인의 성경)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불신앙 속에서도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3 일까지는 그(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마태복음 27:64, 현대인의 성경)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큰 속임수로 입증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까봐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신앙 속에서 불안해했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신앙 속에서도 불안해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네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시편 42:5, 11; 43:5, 현대인의 성경).

- (3) 빌라도 총독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경계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시오?”하자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경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다”(마태복음 27:65-6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공생애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20:19, 현대인의 성경)[참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 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마태복음 16:21,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가복음 8:31,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마가복음 9:31, 현대인의 성경);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10:34, 현대인의 성경); “이어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9:22, 현대인의 성경);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18:33, 현대인의 성경);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24:7,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5:4, 현대인의 성경). 새 찬송가 160 장 “무덤에 머물러”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1 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2 절)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3 절)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후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예수님을 3 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사도행전 10:40,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고린도전서 6:14, 현대인의 성경).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고린도후서 4:14,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참고: 골로새서 3:1, 공동번역).

##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뜻: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하고 외치셨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두고 봅시다”하였습니다(마태복음 27:46-47, 49, 현대인의 성경).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뜻: “나의 하나님”)하고 외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이름 뜻: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를 부른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어쩌면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은 말라기 4 장 5 절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라기 4 장 5 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요?”하고 물어 보게 하였을 때 요한은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하고 말하자 그들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엘리야와 같은 예언자”(현대인의 성경)]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4 장 5 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하나 두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잘 모르고 말라기 4 장 5 절의 예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는 결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요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합니다.

## 우리도 다윗이나 세레 요한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으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고 준비였던

(마가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 세레 요한이

그를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의 군병들에 의해 무참히 체포된 후(14 절, 호크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15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레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마치고 나서

결국 “잡힌 후”(14 절) 헤롯 왕에게 목 베임을 당해 죽습니다(6:16-29).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나중에 세레 요한에 대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레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마태복음 1:1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지만

세레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지

그의 위대성을 인정받고 들림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마친 후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호크마).

저는 이 세레 요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오래 전 새들백 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릭 워렌 목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구절이라고 말하면서

나눈 사도행전 13 장 36 절 말씀을 다시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다윗이나 세레 요한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으면 됩니다.

## 위선적인 목사들 (1)

위선적인 목사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말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3:3,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 (2)

위선적인 목사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23:4,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 (3)

위선적인 목사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3:5).

## 위선적인 목사들 (4)

위선적인 목사들은 잔치 자리의 특석과 교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백화점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3:6-7,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1)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늘 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그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13,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2)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14,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3)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그들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15,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4)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어리석은 영적 소경들이요  
또한 눈먼 인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16, 17,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5)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철저히 헌금과 십일조 등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23).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6)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서  
겉만 깨끗하고자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23:26-27,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7)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28, 현대인의 성경).

##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8)

위선적인 목사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진실된 목사님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악한 일 때까지 가담해놓고서도  
그 진실된 목사님들의 장례 예배에서는  
사랑했던 척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선적인 목사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3:29-33, 현대인의 성경).

**"...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6, 현대인의 성경).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45-46, 현대인의 성경).

## 이 악한 날에 원수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

예수님께서서는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셔서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때가 왔으니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6:45-47, 현대인의 성경).

지금 이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41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베드로전서 5:8, 현대인의 성경).

지금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와 매우 가까운 식구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 우리를 넘어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원수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참고: 에베소서 6:11, 13, 현대인의 성경).

특히 우리는 “성령님의 칼”이요(참고: 17 절, 현대인의 성경)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참고: 예레미야 23:29)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에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참고: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현대인의 성경은 “성경에는”)

(마태복음 4:4, 7, 10)하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음].

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2:50, 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25:40, 46, 현대인의 성경).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 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6:53-54, 현대인의 성경).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로마 총도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자  
빌라도 총독은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모시 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러 입구를 막아 놓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7:57-60, 현대인의 성경).  
유월절 이틀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을 때  
한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4:3-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러 입구를 막아 놓은 것을 생각할 때  
새 찬송가 323 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3 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  
시 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 자발적으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어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 “강제로”를 붙잡아

그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31-32; 마가복음 15:2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24,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억지로그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책임한 교회 지도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 총독은 모인 군중들에게 소문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빌라도의 아내는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하고 말을 전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 총독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기보다 “바라바를 놓아 주시오”하는 군중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는 외침에 굴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요 또한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요” 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으므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박게 내어주었습니다(마태복음 27:15-2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소문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동기(motive)는 바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했었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고 소문난 죄수 바라바를 감옥에서 석방케 하였는지 참 시기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14 장 30 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 (2)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 아내를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야 함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박게 내어준 이유는 “아무 효과(성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24 절, 현대인의 성경). 과연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은 무슨 성과를 바랐던 것일까요? 혹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던 것처럼(사도행전 12:1-3,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 총독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내어준 것이 아니었을까요? 공의를 행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지도자는 이미 타락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참고: 데살로니가전서 2:4, 현대인의 성경).

(3)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마태복음 27:24,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박게 내어줬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책임한 교회 지도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참고: 마태복음 25:21, 23).

##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

세례 요한은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는데 (마가복음 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전능하신 주님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받쳐서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8 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서 어느 장소에 두시고

3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어느 장소까지 가서서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조금 더 나아가” 홀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36-39, 현대인의 성경).

만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와 죽을 지경임을 나누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하고 기도 부락을 드리신 후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제 괴로운 마음을 그 11 명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눈 후

기도 부락을 하고 함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하고 먼저 간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잔”을 묵상할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하고

물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20:20-2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거두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하고 간구하셨습니다(26:3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몹시 괴로와하시며”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와 죽을 지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겠다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간구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받쳐서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저주를 받은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5:41, 현대인의 성경).

##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아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부대원을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  
자주색 옷을 입힌 후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뒤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7:27-31,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아십니다  
(참고: 시편 69:19,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이사야 51:7,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새 찬송가 87 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4 절).

## "조심하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마가복음 8:10-11,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속 깊이 탄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대에 그런 기적은 보여 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후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12-13 절, 현대인의 성경)[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마태복음 16:2-4, 현대인의 성경)].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하고 경고하시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어 그러시는구나”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마가복음 8:14-1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마태복음 16:8, 현대인의 성경)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마가복음 8:17-18, 21, 현대인의 성경),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마태복음 16:11-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 (1)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했다(마가복음 8:11, 현대인의 성경)는 사실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22 장 18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도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직분자들은 간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선자들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시험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4:7; 누가복음 4:12, 현대인의 성경). 또한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6:41, 현대인의 성경).

(2) 예수님은 마음 속 깊이 탄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가?”(마가복음 8:12,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는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마태복음 16:3-4,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심성이 흉악하고 추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범죄를 행하는 세대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능력이 상실되었고 이미 그 마음에 순결성을 상실하고 편견과 독단에 의하여 진리를 통찰할 능력을 상실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이 이미 충분한 표적과 가르침이 주어졌음에도 악한 의도로 표적만 계속 구했었기에(호크마) 예수님께서서는 마음 속 깊이 탄식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24 장 16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계의 가장 먼 지방에서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곳곳에 배신 행위가 있으니 내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3)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하고 경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둔해져 있었습니다(마가복음 8:15, 17,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마태복음 16:8, 현대인의 성경)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11-12 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누가복음 21:34, 현대인의 성경)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선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마태복음 16:12,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누가복음 12:15,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에 그 날이 너희에게 덮과 같이 덮칠 것이다”(21:34,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마태복음 6:1,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뵈고 있다”(18:10, 현대인의 성경),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누가복음 17:3,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마태복음 10:17,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마가복음 13:23, 현대인의 성경)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 죄 사함에 관련된 마음 중심의 회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죄 사함에 관련된  
마음 중심의 회개[전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호크마)]를 전파케 하시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 곧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4).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파하되  
죄 사함에 관련된 마음 중심의 회개를 전파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여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현대인의 성경)]하고  
전파해야 합니다(참고: 마태복음 3:2; 4:17).

##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했던  
(마태복음 26:59, 현대인의 성경)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죄(61 절)와  
신성을 모독한 죄(63-65 절)로 죽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27:1-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고린도후서 5:21)  
그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여겨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19 장 10 절은 “...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 장 21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흔 잔치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온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하고 부르짖었지만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마태복음 25:11-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7 장 21 절 새번역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있으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처럼

(마가복음 1:8, 현대인의 성경),

저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탄 주일

조 단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시자 거기 앉아 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봉 주겠다”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침구를 걸어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마가복음 2:5-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왜 몇몇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1 절, 현대인의 성경)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6 절, 현대인의 성경) 설마 그들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2 절, 현대인의 성경)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겠조? 호크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어떻게든 책(責)잡기 위해서 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들 틈에 끼어 자리를 잡고 앉아 예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 마음은 예리한 칼날같이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호크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이 해석을 제 자신에게 반영해보면, 저도 율법학자들(서기관들)처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겸손히 들으려고하기 보다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책잡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예리한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기를 원하기보다 오히려 제 마음이 예리한 칼날같이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점검하며 자꾸만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2) 그 몇몇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신성모독죄).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요한복음 10:30),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 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 외쳤습니다(마가복음 26:63-66, 현대인의 성경). 그 대제사장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모든 외친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외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받아야 마땅한 죄인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상대방에 대해 책잡기 위하여 머리가 분주하게 돌아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을 죄인으로 여기 마음속으로라도 정죄하게 만듭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그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 편 1-4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되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참고: 17-18 절, 현대인의 성경).
- (4) 예수님께서서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누가복음 6:37)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11:4)은 특권입니다.
- (5)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들에게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의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그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그의 죄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병의 원인인 죄를 먼저 용서해주신 후 그의 병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 (6) 그 집에 문 앞까지 꼭 차서 발 늘어놓을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는데(마가복음 2:1-2, 현대인의 성경)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일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 가지고 걸어서 집을 나갔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12 절, 현대인의 성경)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건짐으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사도행전 16:23-25).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하고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그 곳 이름이 “찬송의 골짜기”로 불려졌습니다(역대하 20:1-2, 21, 26,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우리의 “아골 골짜기”(괴로움의 골짜기)(여호수아 7:26, 현대인의 성경)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하였습니다(마가복음 1:4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고백)했다는 사실이 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하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마태복음 16:15-17, 현대인의 성경).
- (2)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이 참 귀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가복음 14:36).
- (3)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기의 문둥병을 깨끗이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었다는 사실이 참 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마태복음 8:13). 실제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마가복음 1:41-42,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사 동정하시고  
실제로 여태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며 앞으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 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마가복음 1:13,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친 것을 요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못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들(민수기 14:22; 시편 106:14;  
히브리서 3:8, 현대인의 성경)과 좀 연관을 짓으면서  
제 자신에게 반영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비록 저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품고(참고: 민수기 11:4)  
하나님께 지나친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못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저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으시되  
(히브리서 2:18, 현대인의 성경)  
저의 연약함을 아시사 동정하시고(4:15)  
실제로 여태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며 앞으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는 수 없이 사탄의 시험(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시사  
저를 낮추시고(참고: 신명기 8:16, 현대인의 성경)  
또한 단련하시사(참고: 욥기 23:10) 결국에 가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참고: 신명기 8:16)이신 줄 믿습니다.

## 주님의 부르심 (God's calling)

갈릴리로 가서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하시자 그들을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좀 더 가시다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즉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마가복음 1:14-2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사탄에게 40 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파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4 명의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시험”, “복음” 그리고 ‘제자 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려고 부르신 4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4 명이 다 어부라는 것도 흥미롭지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씀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두 형제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 아버님과 셋째 삼촌인 고 김창혁 목사님을 부르셔서 기름부어 세워 목사가 되게하신 것처럼 제 형인 김주원 선교사님과 저를 부르셔서 기름부어 세워 목사가 되게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 아들 Dillon 승관(뜻: 신실하고 진실하다, 승리의 면류관)이를 부르시사 이렇게 신학공부 및 전도사로 사역케 하고 계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일본에 2 년째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딸 예은이도 엇그저께 안방에 들어와서 저희 부부에게 자신의 마음의 큰 고민을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나눴을 때 저는 그녀의 아버지로서 그녀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엿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리뿐만 아니라 예은이도 선교의 마음을 주시사 부르심에 그저 감사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전하면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마가복음 2:18-2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호크마 주석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참 경건과 금욕과 절제 생활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였던 이유는 자기들의 경건과 헌신의 외적인 표시로서 오직 형식주의적인 입장에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들 모두는 금식을 해야 참된 경건을 보여 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 장 26-27 절 새번역 말씀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시인 금식은(삼상 31:13; 삼하 12:11 - 23; 눅 5:35).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부적절한 것이다. 유대인의 혼인식은 특히경사스런 행사였다. 손님들은 때로는 한주간이나 계속되는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했다. 것처럼 즐거운 잔치 중에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직 그날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르는 극락(極樂)의 시간들로서 심지어 율법에서조차 혼인식 전후에는 여러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신 20:7).”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가 없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2:19,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셨고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및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앞당겨 맛보고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즉 신부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랑되신 주님께서서는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에베소서 5:27,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9:9, 새번역). 신부된 교회인 우리는 이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앞당겨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6).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히 가는 이 세상(시편 90:10)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에스라 8:23, 현대인의 성경).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참고: 요엘 2:12,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이사야 58:6,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마태복음 6:16, 현대인의 성경).

- (3) 예수님께서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는데(마가복음 2:20,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빼앗길”이란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매우 격렬하게) '빼앗다', '제거하다'로서 어떤 고통스럽고 미어지는 듯한 이별의 장면을 연상케 한다.” “... 이는 슬픔을 유발시키는 억지에 의한 빼앗김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의 사역 시초부터 그의 죽음에 직면했다.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 같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실로 예수의 공생애 3년간의 모습은 바로 그들 제자들이 지니는 기쁨의 이유이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바로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 할 이유가 된다. 어쨌든 자신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수의 사역은 모든 죽어 있는 종교와 심령들에게 새로운 진실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한다.” 어제 주일 성찬식 때 읽은 고린도전서 11 장 26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전하면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주님이 다시 오실 때 ...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24:45-46,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보시기에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 모두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 또는 “많은 일”에 충성하기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들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참고: 마태복음 25:21, 23).

##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3-14, 현대인의 성경).

##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자기 재산”(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14-1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사실과 전지하신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능력”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준비한 처녀들”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잠이 들고 있는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때 그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하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 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나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마태복음 25:5-1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준비한 처녀들”이란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신부가 되어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2).

## 중요한 것은 저는 주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으로서 ...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꼭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1-2, 현대인의 성경).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온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예수님께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소문(1:23-28)과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기에(32-34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 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주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음”(14 절)

또는 “하나님의 말씀”(2:2, 현대인의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에스겔 2:5, 7; 3:11)

또한 그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 지를 막론하고”

(예레미야 42:6)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26:2, 현대인의 성경) “성실함으로”(23:28),

“부지런히(25: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꾸준히”(26:5)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0452099467>]

## 지금 귀가 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나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에바다”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또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뜻: “열리라”)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날수록 사람들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 “참 굉장한 일이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다니!”하고 감탄하였습니다(마가복음 7:31-3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사람들이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한 사실(32 절,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한 3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a)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은 양쪽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음(33 절, 현대인의 성경) “반병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한 병어리는 아니었고 “단지 언어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호크마). 지금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농아로서 청각 장애도 있고 언어 장애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인터넷).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언어 장애까지 있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말인데도 그 말의 소리를 낼 수가 없는겁니다. … 말을 한다라는 건 소리를 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청각을 잃게 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

(b) “사람들이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렸다”(2:3-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5 절, 현대인의 성경). 이 네 사람들처럼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리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c)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에게 “엎어 달라[“안수하여 주시기를”(개역개정)]고 “간청하였다”(마가복음 7:3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25-26 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간청하였다’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의 치유를 소망하며 예수께 거듭거듭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호크마)는 것을 참고할 때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엎어 달라고 간청하였던 그 사람들도 그의 치유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거듭거듭 호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 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1 절, 현대인의 성경):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4-5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2 절, 현대인의 성경)도 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데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7 절, 현대인의 성경) 제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한 가지 일”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입니다(시편 27:4, 현대인의 성경).

(2) 예수님께서서는 그 귀먹은 반병어리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시고 또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시고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마가복음 7:33-34)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한 3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a) 예수님께서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신” 형태의 치유 행위는 당시 헬라와 유대인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Taylor, 호크마). 요한복음 9 장 6-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b)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마가복음 7:34)는 말씀을 묵상할 때 원로 목사가님이 수요 예배 때 로마서 8 장 19-27 절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탄식’”이란 제목 아래 선포하신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탄식’”이란 (1) 피조물의 탄식(22 절), (2) 우리의 탄식(23 절) 그리고 (3)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26 절). 예수님께서 그 귀먹은 반병어리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이요(참고: 로마서 8:22) 또한 그의 “몸의 속량”(참고: 23 절)을 간절히 사모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음(현대인의 성경)]하셨는데(6:41) 귀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마가복음 7:34).

(c) 예수님께서 그 귀먹은 반병어리 사람에게 “에바다”(뜻: “열리라”)고 외치셨을 때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34-35 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지금 귀가 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나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나 주님의 “에바다”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첫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였고, 두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였습니다(마가복음 8:27-29, 현대인의 성경). 비슷한 말씀인 마태복음 16 장을 보면(참고: 누가복음 9 장 18-21) 제자들의 첫번째 질문의 대답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하고 추가 말씀하고 있고, 두번째 질문의 베드로의 대답에는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추가 말씀이 있습니다(마태복음 16:14, 16, 현대인의 성경).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 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17-1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습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가복음 8:3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지방들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고 질문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호크마 주석을 보고 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중 원주민들은 바알을, 헬라계 사람들은 산림과 야수(野獸)의 신(神)인 '판'(pan)의 산당을 지었으며 헤롯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이곳에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았다. 이러한 우상의 땅에서 예수 제자들에게 당신이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이다”(호크마).

(2)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하나”(마가복음 8:28) “예레미야”(마태복음 16:14) 또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누가복음 9:19)고 말하기도 하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헤롯 왕이 생각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4:1-2, 현대인의 성경). “유대인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 것은 분봉 왕 헤롯 빌립처럼(14: 1, 2) 예수의 능력과 행하신 역사를 보고 과거 세례 요한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폭발적인 영을 기억한 데에서 기인(起因)되었다. 이것은 또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활 신앙관에서도 비롯되었다(14:2)”(호크마).

- (3) 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답변인 “세례 요한,” “엘리아,”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답변들이 틀렸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3 장 7-1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 (4)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태복음 16:16, 현대인의 성경)하고 대답을 하였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 예수에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것 가운데 하나로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의 인성(“그리스도”)과 신성(“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호크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Calvin). 그러나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요한일서 1:22).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의 영, 거짓의 영[“미혹의 영”(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시인)하지 않습니다(4:2-3, 6, 현대인의 성경).

- (5) 이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마태복음 16:17,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고백을 하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요한복음 16: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면 됩니다(요한일서 2:27, 현대인의 성경).
- (6)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고린도전서 10:4)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된 진리 위에 세우시므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복음 16:18)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호크마)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린도전서 15:55-57).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시편 49:15).

## “친구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와 미리 암호를 짜 둔 후 곧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마태복음 26:47-5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은 시편 2 편 12 절 말씀과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와 기쁨 부은(2 절, 현대인의 성경) 왕(6 절)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의 표시로 경의를 표하라는 의미인데(호크마) 가롯 유다는 그리스도를 불순종하여 오히려 그를 배반의 표시로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 (2)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에게 “친구야”하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 장 13 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팔아 넘기는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 장 44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새번역).
- (3)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마태복음 26:50,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하고자 했던 일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46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친구야”(50 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4 장 4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우물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2 절)이 아브라함의 명령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4 절)는 말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 사는 성 밖에 있는(10-11 절, 현대인의 성경) 우물가에서 기도한 내용(42 절, 현대인의 성경)으로서 그 늙은 종은 그가 하나님께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소서”하고 기도한 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로서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참고: 39, 42 절)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에게 “친구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50 절, 현대인의 성경). 새 찬송가 549 장 “내 주여 뜻대로”를 작사한 베냐민 슈몰크(Benjamin Schmolck, 1672-1737)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은 죽음보다도 참기 힘든 고난의 때에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1704 년, 그의 나이 32 살이던 어느 날, 부부가 심방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 집이 홀랑 불타버리고, 아들 둘은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다가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Mein Jesu, wie du willst' (나의 예수여, 주님 뜻대로 하소서) 라는 찬송을 작사한 것입니다. 3 절 마지막,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인터넷).

## 침묵이란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에 묵묵히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마태복음 26:59-6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1)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태복음 20 장 18 절 말씀의 성취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 (2)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하고 말했지만(누가복음 22:33, 현대인의 성경) 도망쳐 버렸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고 했지만(마태복음 26:56, 58, 현대인의 성경)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린도후서 1:9, 현대인의 성경)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사도행전 26:31,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사형장의 죄수처럼 제일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었습니다(고린도전서 4:9,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사도행전 25:7, 11, 현대인의 성경). 사도 바울이 그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시편 102:20, 현대인의 성경)
- (3)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마태복음 26:60,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뿐이다”(잠언 12:17,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짓 증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입니다(마태복음 15:19,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잠언 25: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할 것입니다(참고: 시편 27:12,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일로 우리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참고: 시편 35:11,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입니다(참고: 잠언 24:28, 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분명히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출애굽기 20:16,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참고: 이사야 29:21, 현대인의 성경).

- (4) 많은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마지막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얻을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이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 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입니다(마태복음 26:60-61,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 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하고 말씀하셨었습니다(요한복음 2:19,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나(18 절) 예수님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얻을 만한 증언을 한 그 두 사람이나(마태복음 26:60, 현대인의 성경) 모르고 있었던 사실(진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요한복음 2:21, 현대인의 성경)라는 것입니다[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2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랬기에 그 두 사람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의회나 예수님을 고소한 모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처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한 것은 성전 모독죄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곧 참란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이정현).
- (5)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마태복음 26:62-63, 현대인의 성경). 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헐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신 것일까요? 이사야 53 장 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은 비록 아무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헨리 나우웬). 그리고 침묵이란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비난과 수군수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는 말들을 듣는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참고: 고린도후서 1:9, 현대인의 성경)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에 묵묵히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 칼(총)을 쓰는 사람은 ...

칼(총)을 쓰는 사람은 다 칼(총)로 망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6:52, 현대인의 성경).

##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한 여자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곧 알려지고 말았습니다(마가복음 7:24, 현대인의 성경).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마태복음 15:22, 현대인의 성경)]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수로베니게 태생의 그리스이스 사람(마가복음 7:25-26, 현대인의 성경)[“한 가나안 여자”(마태복음 15:22, 현대인의 성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마가복음 7:25, 현대인의 성경)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치면서(마태복음 15:22, 현대인의 성경)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마가복음 7:26,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 버리십시오”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마태복음 15:23-2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7:27, 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예수님에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28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네 말이 옳다”(29 절, 현대인의 성경),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마태복음 15:28, 현대인의 성경),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마가복음 7:29,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마태복음 15:28,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이 이미 나가고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마가복음 7:3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예수님께서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아마도 “어느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신 것 같습니다(마가복음 7:24, 현대인의 성경). 즉, 예수님은 좀 쉬시고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25 절)으로 말미암아 “곧 알려지고 말았”던 것(24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쉴 새 없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수님께서서 유일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으셨던 때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참고: 마가복음 1:35, 6:31; 누가복음 5:16).

- (2)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한 것(마가복음 7:25-26, 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할 때 “그러한 딸을 두고 있던 그 여인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이”기에 그 어머니는 “자기 딸의 치유를 소망하며 예수께 거듭거듭 호소하”되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 민족적 반감이나 개인적 자존심을 모두 팽개치고 예수께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호크마). 저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심정도 첫째 딸이 죽어갈 때와 또 다른 딸이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녀들의 치유를 소망하여 주님께 거듭거듭 호소하며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 (3)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5:23, 현대인의 성경)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을 때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고(27:12; 참고: 26:62; 마가복음 14:61) 또한 헤롯에게와(누가복음 23:9) 빌라도에게도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마가복음 15:4; 요한복음 19:9). 이사야 53 장 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 (4)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 버리십시오”하고 말했는데(마태복음 15:23, 현대인의 성경) 왜 그리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22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에게 “쫓아 버리십시오”하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했을 때(마가복음 7:2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간청을 들었을 텐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그 여자를 “쫓아 버리십시오”하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게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하기보다 왜 “쫓아 버리십시오”하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귀찮은 그 여자를 빨리 쫓아버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었다. 따라서 침묵하는 예수 앞에 그들이 중재자로 나선 것은 그 여자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同情心%) 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호크마).
- (5)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하고 말씀하셨는데(마태복음 15:24,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10:6,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의 반복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으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결코 유대인에게서만 국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주로 유대인 사역에 힘쓰시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 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좇아 힘써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요한복음 10:16; 사도행전 1:8)(호크마).

- (6)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하고 말한 것(마태복음 15:25, 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할 때 찬송가 “나 주의 도움받고자” 1 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시편 121 편 1-2 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현대인의 성경).
- (7)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하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마가복음 7:27-28,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그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맞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의 우선권과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비천한 자신의 존재(“개”)를 인정한 것입니다(호크마). 그리고 그녀는 “상 아래 있는 개”인 비천한 이방인인 자신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개'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할 때 받는 인격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주의 은총을 간청하는 모습은 극한 겸손의 표시이다. 이 같은 겸손과 유대인의 오만한 우월의식이 대비되어 이방 여인의 믿음이 높아진다”(호크마).
- (8)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정말 네 마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마태복음 15:28,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믿음'이란 그녀의 신뢰(trust), 확신(confidence)과 아울러 겸손(modesty)과 인내(patience)까지를 포함한 말이다”(호크마). 이러한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한 여자는 그녀의 소원대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셨습니다(마가복음 7:26, 29,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갔고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30 절, 현대인의 성경).

## '큰 산불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배에 올라 앉으셔서 바닷가에 그대로 있는 군중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신 후(마가복음 4:1-2, 현대인의 성경)에 그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남겨 두고 예수님이 타신 배로 함께 떠났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하십니까?”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35-41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여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는 말씀(37 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 때 요나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배도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내리신 “큰 바람”으로 인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요나 1:4). 그리고 생각난 게 어제 수요일 아침에 알게 된 여기저기 산불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산불이 났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그 산불이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고 아직도 진압이 0%이고 많은 집들과 건물들 등등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사람들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 2025 년도도 큰 어려움(큰 재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마가복음 4:37,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더 묵상할 때 약 22 년 전엔가 한국 안산 수양관에서 교회 목회자 갱신 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고 옥한음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배로 표현하시면서 지금 이 배(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렵듯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기준을 낮추면 한국 교회는 배가 침몰하듯이 망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번 산불을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여기저기 인터넷과 카카오톡으로 사람들하고 나누다가 갑자기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https://youtu.be/P2ZkvRqUHVI?si=AaCILCU-5\\_hISRij](https://youtu.be/P2ZkvRqUHVI?si=AaCILCU-5_hISRij))와 주일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복음성가 “부흥”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 이 큰 재난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revival)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기원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확신(conviction)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revival)은 회개(repentance)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저 같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참고: 요엘 2:13)[Repentance (회개), Reconciliation (화목), Restoration (회복), Reformation (개혁), Revival (부흥). 회개가 없는 화목과 회복과 개혁과 부흥은 무의미합니다!].

- (3)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씀(마가복음 4:38,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어제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주로 아내가 잠을 잘 자고 제가 잠을 잘 못자는데 그저께 화요일 밤에 저희 집이 좀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아마 산타아나 하강풍이 시속 95-112km/h 이었나 봄?) 그 와중에서도 아내의 말로는 제가 잠을 그리도 잘 잤다고 합니다. 하하.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믿기지 않았을 정도였지만 그 와중에 그나마 깊은 잠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4 장 38 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꼭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강의 축복을 주님께서 지금 큰 산불들로 인해 난리가 난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4)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fear of death)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하십니까?”하고 소리친 것이라 생각합니다(마가복음 4:38,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른 척하셨을까요?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모른 척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산불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마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 왜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 (5) 우리 임마누엘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명하시자 바람과 바다도 주님께 복종하여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마가복음 4:39, 41,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큰 어려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큰 폭풍과 파도로 인해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칠 때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참고: 요한복음 20:19)하고 말씀하심으로 요동치는 우리 마음의 풍랑과 파도는 잔잔케 하여주시사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여 주십니다(참고: 시편 131:2,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큰 축복이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 (6) 큰 폭풍과 파도를 아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4:40, 현대인의 성경).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문 가운데서 의심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그 결과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 큰 폭풍과 파도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을 덮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30 장 1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는 돌아와서 말없이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힘을 얻을 것이다.' 하셨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 (7)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지 크게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마가복음 4:41, 현대인의 성경).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만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영혼 내영혼 평안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새 찬송가 413 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 절과 후렴).

[[https://youtu.be/EQpiil1Hd64?si=Z-BepQenWar\\_9X8N](https://youtu.be/EQpiil1Hd64?si=Z-BepQenWar_9X8N)]

##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상속)받을 것입니다(참고: 마태복음 25:34,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마태복음 26:33-3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 (1) 역시 “절대로”란 말은 절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하.
- (2)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 (3) 비록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70, 72, 74 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참고: 마태복음 16:23).

## 하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

하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22:8, 14, 현대인의 성경).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4:34-35, 현대인의 성경).

##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고 또한 열 두 제자를 불러 돌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습니다(마가복음 6:6-7, 12-13,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4:23, 7:28, 9:35, 13:54, 21:23, 26:55; 마가복음 1:22, 4:2, 6:6, 34, 9:31; 13:35, 14:49; 누가복음 4:32, 5:17, 6:6, 13:10, 22, 19:47, 20:1; 21:37; 요한복음 6:59, 7:28, 8:20).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요한복음 7:16).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사도행전 18:11). 목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쉬지 않고 가르쳐야 합니다(사도행전 5:42; 디모데전서 4:13, 현대인의 성경). 목사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순수함과 진지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해야 합니다(디도서 2:7-8,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목사님에게 바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디모데후서 1:1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8:31-32, 현대인의 성경).

(2)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열 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했다는 말씀(마가복음 6:7, 12,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전도했고(마태복음 3:2) 또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전도하셨다(4:17)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제가 어제부터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란 책 제목 아래 책을 다섯부로 나눠서 말씀 묵상의 글들을 각부에 나눠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있는데 제 1부가 바로 “회개(Repentance)”란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사도행전 26:20) 우리 가정들에게 이 책으로나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3)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열 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해도(마가복음 6:7, 12, 현대인의 성경)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전도의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11 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본 스테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하고 외치자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큰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쳤다는 사도행전 7 장 55-58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힌 사람들도 있고(마태복음 13:22) 또한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귀를 막고 마음도 완강하게하여 설교한 목사님을 마음 속으로 돌을 던지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